

# 빛나는 지성, 비트겐슈타인과의 만남

## 언어의 중요성 강조한 철학과 그 언저리

엄정식

서강대 교수 · 철학



**“일반적으로 철학적 탐구에는 언어적 요소가 많이 개입되게 마련인데, 전통철학자들이 무관심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사실, 철학에서 언어적 요소를 제거하면 무엇이 남아 있겠소?”**

비트겐슈타인.

엄정식 — 정작 이렇게 만나뵈게 되니 꿈만 같습니다. 특히 선생의 철학이 매우 난해하고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더구나 저의 경우 철학을 포기하려고 했던 시기에 선생의 사상을 접하여 새롭게 시작한 셈이니까 학문적으로 은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 — 저도 무척 반갑습니다. 엄 선생이 때로는 나의 입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어떤 점은 너무 과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의 철학을 열정적으로 소개하는 점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 선생은 나의 철학적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철학의 패러다임 바꾼 독창적 분석

엄정식 — 글썬요, 어떤 점을 너무 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서양 철학사에서 선생이 가장 중요한 세 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철학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비트겐슈타인 — 그게 무슨 뜻인가요?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만….

엄정식 — 서양철학을 ‘확실성의 추구’라는 맥락에서 이해했을 때, 플라톤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존재를 향한 ‘외부지향적’ 추구를 시

도했고, 데카르트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인식을 위한 ‘내부지향적’ 추구를 시도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선생께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추구를 비판하고 ‘언어의 분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저는 더 이상 분석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의미를 위한 ‘관계지향적’ 추구라고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선생께서 가장 천재적이고 창의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 — 아!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해주시고 고맙고, 또 약간 과찬의 말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나로서는 일반적으로 철학적 탐구에는 언어적 요소가 많이 개입되게 마련인데, 전통적인 철학자들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사실, 철학에서 언어적 요소를 제거하면 결국 무엇이 남아 있겠소? 철학이 사물의 본질이나 현상의 의미를 해명하고 의미가 결국 언어적 속성일 뿐이라면 그것은 언어비판 외에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단 말ियो.

엄정식 — 저는 철학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존재나 인식의 문제 못지않게 의미의 문제도 중요하다는 뜻이었지, 의미의 문제

가 철학적 문제의 전부와고 따라서 철학은 언어비판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는데요.

비트겐슈타인 — 글썬요, 무엇이 문제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소?

엄정식 — 조금 전에 제가 철학적 탐구를 확실성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존재와 인식과 의미의 문제로 구분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천문학적 탐구와 비교했을 때, 존재론적 추구는 별들의 크기와 위치와 움직임에만 관심을 집중시켰다면, 인식론적 추구는 그러한 관심을 가진 천문학자의 입장이나 능력에 더욱 신경을 썼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에 비해서 의미론적 추구는 별과 천문학자 사이에 망원경이 있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더구나 망원경의 도움 없이 별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사실에 몰두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 비유가 옳다면 별 자체와 망원경 안에 담겨 있는 별의 영상을 동일시킬 수 없듯이 언어적 의미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그 무엇’을 동일시해서는 안되는 것 아닐까요.

비트겐슈타인 — 네,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좋은 점도 있지만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습니다. 가령 별과 그것을 바라보는 나 자신, 그리고 나와 별 사이에 있는 망원경을 구분함으로써 우리의 인식 상황을 설명한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그 구분이 엄 선생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칸트(I. Kant)의 입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엄정식 —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비트겐슈타인 — 우선 칸트는 별과 망원경과 관측자를 뚜렷하게 구분한 반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만약 이것을 구분하면 인식의 대상과 인식의 주관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또 그렇게 되면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 즉 대상의 원천이 되는 ‘그 무엇(Ding an sich)’의 존재도 뚜렷해진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언어의 본질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의미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상 혹은 현상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입장에서는 칸트의 ‘물자체’라는 개념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언어’의 본질을 규명하는 대신 ‘언어게임’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언어현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전체를 수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잘 적응하면 ‘그 무엇’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 나의 입장입니다.

### 칸트의 ‘물자체’ 외의 구분

엄정식 — 그렇다면 정말 칸트가 말하는 ‘그 무엇’ 혹은 ‘물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언어적 의미만 존재한다는 말씀입니까? 가령 이른바 로티의 ‘신실용주의(New Pragmatism)’나 데리다의 ‘탈근대주의(Post-modernism)’와 입장을 같이 하시는가요?

비트겐슈타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인간의 인식능력 한계 안에서 ‘그 무엇’이 있다고 확인할 수도 없지만 또 그러한 것은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언어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있다든지 없다든지, 또는 그것이 어떠한가든지 설명하는 것은 결국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단언하는 회의주의 혹은 아무렇게나 말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상대주의도 일종의 독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티나 데리다의 입장과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들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형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엄정식 — 그것이 무엇입니까?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비트겐슈타인 — 나는 나의 강의에서나 글에서 이 형식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도 중요하고 그래서 당연히 전제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칸트의 ‘그 무엇’과는 다른 개념입니다만 그것은 인간의 언어현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하는 조건 같은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인간의 ‘생태형식(Lebensform)’이라고 부릅니다만, 이것을 무시하고 인간의 현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이 잘

“선생께서는 전통적 서양철학자들이 시도한 ‘외부지향적’ 혹은 ‘내부지향적’ 추구를 비판하고 ‘언어의 분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저는 그것을 더 이상 분석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의미의 ‘관계지향적’ 추구라 해석하고 싶습니다.”



엄정식 교수.

이루어질 때 단순히 의견의 일치라기보다는 이 형식의 일치라고 한 것은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 형식이 일치되었을 때 언어는 더 이상 수행할 역할이 없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연스럽게 된다고나 할까요.

**엄정식** — 선생께서 그 ‘자연스러움(spontaneity)’을 강조하니까 가버(Newton Garber) 같은 사람은 선생을 아예 ‘자연주의자’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로서는 아무래도 잘못된 견해가 아닌가 하는데요.

**비트겐슈타인** — 나는 어떤 형태로든 체계화된 이론가로서의 철학자를 싫어합니다. 이론을 정연하게 체계화하면 이해하기는 쉽지만 성긴 그물 같아서 감칠맛 있는 작은 고기는 모두 놓치게 마련이지요. 그것은 ‘자연주의’라는 이론체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주의는 자연의 법칙이 지배하는 폐쇄된 세계를 그려내고자 하며 결국 그 법칙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방식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자연주의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엄정식** — 물론 그런 의미로 자연주의자는 아니지만 자연스러움을 좋아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양의 노장(老莊)사상이나

선(禪)사상과 매우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요즘은 선생의 입장을 비교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들과 비교하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고, 저도 지난 97년 12월에 미국철학회에서 <비트겐슈타인과 선(禪)>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자연성 ‘일상성’에 대하여**

**비트겐슈타인** — 나는 도가(道家)나 선가(禪家)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점이 비슷한지 설명해 주시지요.

**엄정식** — 우선 이론적 체계화를 의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혐오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애쓴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유사점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유사점이 ‘자연성’이라고 할까 혹은 카벨(S. Cavell)이 말하는 ‘일상성(the Ordinary)’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비트겐슈타인** — 아주 흥미있는 비교인데요. 적어도 거기까지는 부정할 용의가 없습니다. 벌써 시간이 되어서 돌아가야겠군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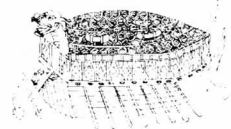
**엄정식** —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거꾸로 읽으면  
똑바로 보인다!

**DONGAN**  
독산동아  
TEL: 853-5608  
http://www.dong-a.com

누군가 찾아야 할 도둑맞은 우리 역사

**한반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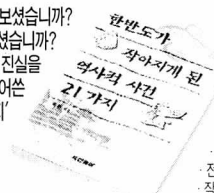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리가지**



우리땅은 한반도가 아니라 생각, 해보셨습니까?  
삼국통일이 통일이 아니라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우리역사의 진실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미있고 쉽게 풀어쓴  
‘한반도가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21가지’  
한국사, 이제 거꾸로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부터 넓혀드립니다.



거시적 안목으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수준있는 한국사

- 단군신화는 우리 역사가 작아지게 된 첫 출발점
- 너무나 길었던 삼국시대
- 통일이 아닌 통일, 삼국통일
- 너무 편이한 두 개의 진리장성
- 두 임금의 과거제도
- 전통사상에 관한 서적으로만 썩 찬 조신의 금서목록
- 작은 거울을 고백하는 까닭 등...

박 현 지음 / 7,000원

술술 읽으면 씩씩 들어오게  
풀어쓴 현대철학 이야기

**DONGAN**  
독산동아  
TEL: 853-5608  
http://www.dong-a.com

읽기 전에는  
아는 척하느라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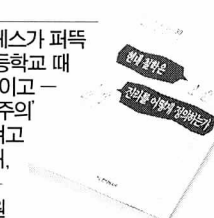
필수 핵심용어 30가지 완벽 정리

**현대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읽은 후에는  
아는 척하느라  
바빠졌다!



철학자라면 소크라테스가 퍼뜩  
떠오르고, 철학이라면 고등학교 때  
배운 상식 수준이고 —  
누가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운운할 때면 중간이나 가려고  
침묵을 지키시던 분들을 위해.



현대 철학자 30인의  
철학적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현대 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  
이 책 한 권이면 당신도  
철학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남 경태 지음 / 6,800원